

2023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고린도전서

메시지 9  
우상숭배를 피하여  
지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종교의 진영 밖으로 나아가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됩

성경: 고전 10:1-14, 출 33:7-11, 민 14:9, 유 24, 히 6:19-20, 13:13

I. 고린도전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신약의 믿는 이들의 예표로서 다룬다 — 고전 10:1-13.

- A.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 믿는 이들은 그들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무교절을 지키기 시작했다.
- B. 10장에서 그들은 흥해(그리스도의 죽음)를 통과하는 침례를 받아 모세(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 — 고전 10:1-2.
- C. 이제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들의 영적인 물이신 그리스도를 마셔 그들의 좋은 땅(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을 향한 여정(그리스도인의 경주)을 갈 수 있게 된다. 또한 6절부터 11절까지에서 묘사되었듯이, 하나님을 거슬러 악을 행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는다.

II.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신 목표는 그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 그 땅의 풍성을 누리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 출 3:8, 14, 17.

- A. 그러나 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해 구속받고 이집트의 학정에서 구출받고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려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고 그들의 악행과 불신 때문에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히 3:7-19).
- B. 이것은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사탄의 속박에서 구출되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 안으로 이끌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부름의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은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그분의 표현이 되며 왕국 시대에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기 위한 것이다 — 마 25:21, 23.
- C. 이것은 신약의 모든 믿는 이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패를 반복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 D.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목표에 이르렀고 좋은 땅에 들어갔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신약의 믿는 이들은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리는) '상'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얻는) '뜻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 민 14:27-30, 빌 3:12-14.
  - 1.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열두 명 가운데 열 명이 악하게 보고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반역하게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 회중에게 “다만 여러분은 여호와를 거스르지 말며 그 땅의 백성[아나 족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했다 — 민 14:9.
  - 2.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떡이고(마 4:4),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음식이고(요 4:34), 아나 족속도 우리의 밥이다(민 14:9). 아나 족속은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극복 못할 장애물과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는 것들을 대표한다.
  - 3. 사탄이 우리의 길에 두는 모든 어려움과 유혹은 우리를 위한 음식이다. 이것은 영적인 진보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다(딤후 4:15-16). 우리가 승리를 위해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이기는 생명이 나타나도록 허락한다면 신선한 자양분과 활력이 증가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 갈렘은 팔십오 세였을 때 주님께서 사십오 년 동안 살아 있도록 지켜주셨다고 말했고, “나는 오늘도 여전히 모세께서 나를 보내셨던 날처럼 강건합니다. 전투를 하는 데에든 출입하는 데에든, 나의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라고 선포했다 — 수 14:11.
5. 하나님의 지키시는 힘을 가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영을 훈련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그분의 약속들을 온 마음으로 믿고(고후 4:13, 3:16, 1:20),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수 14:12-15, 민 13:30).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벧전 4:19), 우리 자신을 그분께 넘겨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그분께 맡겨야 한다(딤후 1:12).
6. 우리가 그분의 약속들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긴다면 우리는 그날부터 그분이 돌아오시는 날까지 지켜질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그분의 영광 앞에 흠 없는 사람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 유 24.

**III. 바울은 금송아지를 경배했던 이스라엘 자손(출 32:1-6)의 우상숭배를 언급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피하십시오”라고 경고했다(고전 10:14). 바울은 그들에게 “성경에 ‘백성이 앞서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기록된 것같이, 여러분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고전 10:7)라고 말했다.**

- A. 금송아지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이 만든 우상이었다. 일어나서 뛰노는 것은 흥청망청 노는 것(혹은 떠들썩하게 흥청거리는 것)이다. 무엇이든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을 대치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이다(골 14:3). 참되신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모든 이단적인 대체물과 모든 대치물에서, 우상들(요일 5:21)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 B. 우리는 반드시 금송아지 우상의 원칙, 곧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만든 우상이 그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진영이 되게 한 것에 경고를 받아야 한다. 우상숭배는 다섯 가지 원칙을 포함한다 — 고전 10:5-7.
  1. 자기-미화는 우상숭배로 이끈다(출 32:1-4, 33:5-6, 창 35:1-4).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우시시고, 그분 자신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름다운 집인 교회를 아름답게 하신다(사 60:7, 19, 21, 엡 5:26-27). 우리 자아의 표현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지만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신성한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가 있다(요 17:22-24). 우리의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표현하기 위한 생활이다(요 17:4, 고전 10:31, 사 43:7). 우리는 말할 때 자신을 전파하여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믿는 이들을 섬기는 노예라는 것을 전파해야 한다(요 7:17, 고후 4:5).
  2.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탄이 강탈하여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남용하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금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것으로서 성막의 건축을 위해 사용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금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전에 사탄에 의해 강탈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다 — 출 11:2-3, 12:35-36, 25:2-8, 35:4-9.
  3. 우상숭배는 우리가 누리는 것을 경배하는 것, 곧 우리의 오락과 유희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주님에 대한 누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오락과 유희의 형태는 아니다 — 출 32:6, 18-19, 비교 시 36:8-9.
  4. 우상숭배에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은 가식이 있다 — 출 32:4-6, 왕상 12:26-30, 비교 마 4:8-11, 요 4:23-24.
  5. 우상숭배에는 경배에 혼합이 있다 — 출 32:4-6, 21-24, 비교 고전 3:12.
- C.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경배한 후에 모세는 주님의 임재가 더이상 그 백성 가운데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천막을 거두어 진영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쳤다. 그의 천막에는 주님의 임재와 말씀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막이 되었다 — 출 33:7-11.
  1. 진영은 종교적인 사람들, 곧 명목상으로는 주님께 속하지만 실지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주님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거나 추구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2.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최소한 세 시기에 진영을 볼 수 있다.
    - a.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후에 진영이 있었다.
    - b.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때에 유대교는 진영이 되었다.

- c. 후에, 교회는 본성에 있어서 천막에서 진영으로 바뀌었다. 진영은 이름으로만 주님께 속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존중하지만 마음에는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세운 종교적인 한 무리의 사람들로 구성된 종교적 체계, 곧 종교적인 바빌론이다 — 창 11:4, 7, 9, 계 17:3-5, 18:2 상, 4, 마 15:7-9.
- D. 모세가 자신의 천막을 거두어 우상을 숭배하는 진영에서 분별한 후에, 주님은 사람이 자신의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출 33:11). 하나님과 모세는 동일한 일을 하며 큰 기업에서 공동 이익을 갖는 동반자요, 동료요, 동업자였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진 사람이었다.

**IV. 히브리서의 목표와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 히 6:19-20, 13:13.**

- A.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휘장(그분의 육체를 상징함)이 찢어졌지만(마 27:51),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목적을 위해 여전히 육체가 남아 있다.
- B. 우리는 여전히 육체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갈라진 둘째 휘장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되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우리의 영 안에서 살아야 한다 — 고후 5:18-20.
- C.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로서 그분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도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는 보다 분명한 십자가의 체험을 통하여 휘장 안에서, 지성소인 우리의 영 안에서 살아야 한다 — 아 4:12-15, 6:4 상, 롬 8:6, 갈 6:15.
- D.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 주님과 가장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해야 한다 — 히 6:19-20, 13:13, 딤후 1:3-4, 18.
- E.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곳은 주님께서 영광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곳이다.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을 거절하고 배척한 종교의 조직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게 하는 땅에 속한 영역이고, 종교적이게 되는 것은 견고하고 성경적이고 근본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것이다.
- F. 우리는 반드시 체험적으로 말해서 오늘날의 실질적인 지성소인(엡 2:22, 딤후 4:22)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하며 오늘날의 실질적인 진영은 종교 밖에 있어야 한다.
  - 1. 우리가 영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누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종교의 진영 밖으로 나아가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 안에 머물면서 영광 안에 계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접촉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종교의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낮아지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 2. 진정한 신약 사역은 우리를 휘장 안에,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으로 이끌고 그분의 몸을 위해 그분의 고난의 교통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진영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시킨다 — 고후 11:2-3, 23-33.
- G. 휘장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참여하여 진영 밖의 목마른 영들에게 그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비된다. 휘장 안에 들어가고 진영 밖으로 나감으로 우리는 온갖 선한 일에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 — 히 13:20-21.